

제주식물을 사랑한 식물채집가 에밀 타케신부

고정균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본 연구는 식물채집가 에밀 타케신부에 대한 자료발굴과 업적의 평가와 더불어 최근 생태환경의 파괴, 기후위기 등에 의해 초래되는 생태위기상황에서 그 의미를 접근하였다. 이를 위한 접근으로 타케의 발자취와 지명을 고증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식물 표본들 탐색하여 그 의미를 제시하였다. 특히, 타케에 의해 채집되고 일련의 조사연구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진 구상나무와 왕벚나무의 채집에 대한 발자취를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내용과 의미를 자연과 인간의 공생과 함께 지구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가져오게 하는 통합생태론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출발의 시작은 타케에 대한 기념사업의 추진과 함께 왕벚나무의 세계화 사업 등 집단지성을 통한 창조적 발상이 필요하다 것을 강조한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네 가지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타케가 채집한 식물표본을 국내외적으로 탐색하는 것은 식물연구에 대한 자료 발굴과 연구업적의 평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시급히 선행됐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타케와 관련된 식물표본은 세계 식물원 홈페이지의 검색을 통해 종명에 타케티(taquetii) 또는 채집자 타케에 의한 키워드에 의해 정리된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종소명에 타케티가 명명된 125종과 채집자에 타케가 포함된 것이 1,670종에 이른다. 이는 우리나라의 식물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식물연구사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업적에 대해서는 일부 식물분류학을 연구하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 또는 연구재료로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대중적인 인지와 공유정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제시된 식물종 중에는 오랜 기간 식물분류의 연구를 통해 현재에 사용되는 식물명 등이 재정립되면서 종소명에 타케의 업적을 알 수 없는 부분도 상당수에 이른다[예, 섬뽕의비름 *Sedum taquetii* H. Lév. → *Hylotelephium viridescense* (Nakai) H. Ohba]. 즉, 현재 국내외에서 타케의 식물표본으로 확인된 식물목록을 통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중에 어떤 종을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대상이 너무 많다. 또는 당시 타케에 의해 채집되어 발표된 식물명이 어떤 변천사를 걸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명으로 재정립되었는지를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식물분류 연구자들에게 주어지는 과제이기도 하지만 단순한 식물표본 목록이 아닌 타케에 의해 채집된 표본의 데이터베이스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밝혀졌던 식물종의 연구사나 그 의미를 체계화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각각의 식물종의 채집정보 및 성과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접근이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통해 식물명의 재정립

과 가치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타케가 식물의 연구업적에 대한 대중적인 공감 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업적과 의미의 대중화는 다양한 창의적 사업발굴과 행정적, 제도적인 지원의 토대가 되는데 중요한 접근전략이라 판단된다.

둘째, 구상나무와 왕벚나무를 이용한 제주 식물의 세계화 접근전략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구상나무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는데, 이중이 제주도에서 채집된 식물에서 기원한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또한 왕벚나무도 구상나무와 유사한 상황인데, 특히 이 식물은 일본의 상징이란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강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중 제주도에 가로수를 중심으로 식재된 일본에서 개량된 왕벚나무의 교체 시 자생왕벚나무로 전환시키는 것은 왕벚나무를 올바르게 인식시키는 중요한 접근이라 볼 수 있다. 다행히, 제주도에 가로수로 식재된 기존 왕벚나무의 노령화에 따른 교체를 위해 자생왕벚나무의 어린나무로 대체하여 식재하는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자생왕벚나무의 교체 및 식재 등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서는 국내외적으로 자생왕벚나무의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수종과 같이 제주도를 대표하면서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특정수종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주도 왕벚나무 공원이나 구상나무 공원이 대표적이다. 이들 공원을 통해 각 대상 식물의 발견과 역사뿐만 아니라 식물과 관계된 문화 등을 담아낸다면 선각자들의 업적과 가치를 알리고, 나아가서는 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 과거 타케의 활동 당시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식물채집가 포리(Fauriei)는 ‘내가 지금하고 있는 일은 후일을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이다. 이 씨가 싹트는 것은 10년, 20년, 아니 그 보다도 더 걸릴지 모르지만 받아하지 않는 것은 없으므로, 늦은 것도 언젠가는 발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 이런 의미에서 타케의 씨앗을 어떻게 발아시키고 잘 성장하도록 키워야하는 지에 대한 깊이 있고 실행 가능한 전략이 모색되어야 할 듯하다. 그 동안 타케의 업적과 관련된 학술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기념사업의 필요성이 제안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타케의 기념비, 기념관, 식물원, 박물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타케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 제안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지난 2016년에는 저명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타케신부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창립되어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과거에 활동했던 선각자의 업적을 발굴하고 재조명하여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되기도 한다. 타케의 기념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중적인 공감을 형성해가면서 정책이나 제도적으로 기념사업에 대한 공유와 뒷받침이 우선되어야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타케의 기념사업과 관련한 추진전략이나 실행계획은 매우 빈약해 보인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특정기관이나 단체 등의 체계 내에서 면밀한 추진전략과 단계별 실행계획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키워드 중 생태평화,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삶, 지구생명공동체의 지속가능성 등은 미래의 방향성을 함축한 의미로 그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류가 겪는 위기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 더불어 자연이 우리에게 적신호를 보내고 있음도 명확하다. 최근 2020 지구생명보고서(WWF)에 따르면 자연이 보내는 SOS 신호 중에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생물다양성은 역사상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는 수없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다. 더욱이 식물은 거의 모든 육상 생태계의 구조적, 생태적 토대이며, 지구생명체를 지탱하는 근간이다. 또한 식물은 인류의 건강과 삶의 질, 식량 조달에 필수적이다. 식물의 멸종 위험은 포유류의 멸종 위험과 유사한 정도이고 조류의 멸종위험보다는 크다. 특히,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식물의 멸종 사례는 포유류, 조류 및 양서류의 사례를 합친 것보다 많다. 아울러 전 세계 식물다양성의 분류학적 범위와 지리적 범위를 대표하는 수천 종의 식물종 표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5분의 1정도인 22%가 멸종위기 상태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생태환경의 위기에서 과거 식물채집가 타케의 활동은 제주도 식물의 다양성과 멸종위기를 대처하고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나아가서는 제주도의 생명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갖게 해줄 씨앗의 역할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전하는 메시지라 판단된다.